

올겨울 뷰티 키로 떠오른 '핑크'를 즐기는 방법



로맨틱 컬러의 대명사 핑크가 시크하게 돌아왔다! 올겨울 키 컬러로 떠오른 핑크를 더 쉽게 즐기는 법을 '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co.kr)이 소개했다.

■ 핑크와 스모키

이번 겨울 꼭 시도해야 하는 메이크업 트렌드, 핑크와 스모키. 낮설고도 기묘한 이 둘의 조합, 완전 시크해! 데일리 룩에선 핑크와 블랙 컬러를 가로 방향으로 조합할 것.

블렌딩이 쉬운 젤 텍스처의 핑크 색도를 눈두덩에 넓게 바르고, 블랙 펜슬 라이너로 두박하게 라인을 그린 뒤 총알 브러시로 빠르게 문지르면 끝. 별다른 음영이나 글리터를 더하지 않아도 시선 강탈 핑크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 핑크 헤어피스

메이크업에 핑크를 활용하기 어려운 핑알못에게 추천하는 최후의 수단, 바로 헤어피스! 모발 전체가 아닌 일

부에만 핑크빛을 더하면 피부 톤과의 어색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수리 부근의 바깥쪽 모발만 살짝 걷어낸 뒤, 그 아래에 핀으로 헤어피스를 고정해주면 끝이다.

다만 핑크 컬러처럼 색감이 강한 헤어피스는 블랙에 가까운 모발보다는 자연스러운 갈색 톤에 매치해야 어색한 느낌을 줄일 수 있고, 직모보다는 웨이브가 들어간 헤어에서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 러블리 핑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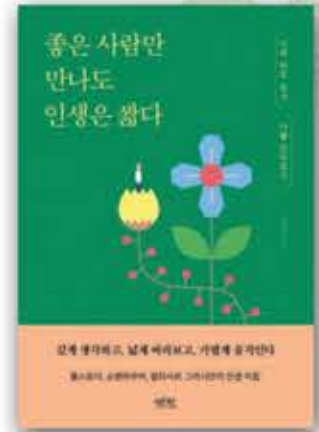
시크한 핑크가 대세라지만, 과즙 뽀뽀 핑크를 고집하는 공주과라면? 애플존에만 동그랗게 블러셔를 올려도 귀엽 쪽발이지만, 특히 중앙부가 길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고민이라면 볼과 코를 가로질러 가로로 바르자.

얼굴이 짧아 보이는 동시에 동안 페이스 장착 완전 가능! 흰기가 섞인 핑크 컬러를 선택해 사랑스러운 느낌을 극대화해도 좋다.

사진=코스모폴리탄

■ 신간

좋은 사람만 만나도 인생은 짧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이라는 명제 앞에서 깊이 사유했던 철학자들의 글을 받아들이고 조합하고 비틀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못한 것은 반성하며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 계획하고 꿈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철학자들의 깨달음에서 버릴 것과 탐할 것을 취사선택하고 자신 앞의 생애를 눈감지 않고 뚜렷하게 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김이울 지음 | 레몬박스 펴냄 | 244쪽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링거투여, 호스피스케어
- 외상치료, 호흡기치료, 기관절개치료

각종 여가활동

- 각종 교육 프로그램
- 아트와 게임
- 종교활동
- 운동 프로그램

다양한 제공

병원 예약, 차량제공
영양상담과
다양한 메뉴 제공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HMO/PPO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909) 621-4751
 한국어 상담: Faith Lim (562) 714-7792
www.communityech.com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







